

현대일본어조사 「가/ハ」에 관한 연구

-지시대명사「これ, それ, あれ」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승우*
bakas400@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これ, それ, あれ」에 따른 「가/ハ」의 문맥고찰 |
|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4.1 「これ 가/ハ」의 의미기능 |
| 3. 「가」와 「ハ」에 따른 지시대명사와의 관계성 | 4.2 「それ 가/ハ」의 의미기능 |
| 3.1 일본문학작품에서의 「これ, それ, あれ+가/ハ」의 빈도 | 4.3 「あれ 가/ハ」 |
| 3.2 「これ, それ, あれ 가/ハ」에 따른 유표성(有表性) | 5. 마치며 |

主題語: 지시대명사(demonstrative), 조사(postposition), 주제(subject), 상관관계(correlation), 이중구조(double structure)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가」와 「ハ」에 있어 지시대명사(사물)에 따른 출현요인과 상관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가」와 「ハ」의 출현,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오리(庵, 1997)는 「가/ハ」의 구문을 주로 다루어 구문에 있어서의 「가/ハ」의 출현이 지시대명사(この, その)의 존재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오리(庵, 1997)의 견해는 「가/ハ」출현요인을 「지시대명사의 의미기능(즉, 신정보의 지시인지 옛(古)정보의 지시인지)」와 관련시켜 논하고 있다는 점으로도 상당한 시사를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ハ」의 출현요인을 오로지 지시대명사(この, その)의 의미기능에 주목하려한 이오리(庵, 1997)의 「가/ハ」의 출현에 따른 지시대명사(この, その)의 존재에 따른 영향성에 관한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니시아마(西山, 2003)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 대림대학교 국제어학원 교수

「が」와 「は」의 구문에 있어서 「ガ/ハ」의 배타적 출현요인은 지시사의 의미기능과 상관성에서 고찰하기 보다, 오히려 조사에 선행하는 명사구와의 상관성에서 고찰한 것이 크나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が」와 「は」의 사용구분에 따른 원리와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조사 「は」와 「が」가 신구(新舊)의 의미로서만 사용되어 왔지만 본고는 「は」와 「が」를 명사구에 주목하여 지시대명사(사물) 「これ, それ, あれ+ガ/ハ」에 있어 「が」와 「は」가 기본적인 기능은 상실하고 지시대명사의 성질인 지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적(二重的) 의미구조)를 입증하고,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が」와 「は」의 구분은 일본어 구문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학설이 나와 있다. 다음과 같이 「が」와 「は」의 사용구분을 중심으로 중요한 학설을 소개하겠다.

구노(久野,1973)는 「は」에는 「주제」와 「대조」, 「が」에는 「총기(總記)」 「서술」의 각각 다른 2가지 용법이 있다고 하였다.²⁾

(1) 太郎は走っている。

[주제]: 太郎の話をすれば、彼は走っている。

[대조]: 太郎は走っている(が、花子は走っていない)

(2) 太郎が走っている。

[총기(總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走っているのは太郎だけだ。

[서술]: 「ごらん、太郎が走っているよ」

주제가 되는 명사구는 총칭명사구나, 이미 화제가 되어 있는 사물을 문맥지시명사구가 아니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1) 본고에서의 이중적 의미구조는 조사 「は」와 「が」가 기존의 조사로서의 기능만이 아니고 지시사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가설에서 「이중적 의미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구노(久野, 1973) 『日本文法研究』大修館書店 pp.207-208

- (3) a.人間は考える葦である。(총칭)
- b.太郎は私の友達です。(문맥지시)

는 문법적이지만,

- (4) a. *大勢の人はパーティーに来ました。
- b. *雨は降っています。

는 독립문(文)으로서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5)와 같은 [대조]가 되는 명사구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따라서 (4)도 「大勢の人」, 「雨」가 어떤 다른 명사구와 비교, 대조되는 듯한 문맥에 나타나면 문법적이 된다.

- (5) a.大勢の人はパーティーに来ましたが、面白い人は一人も来ませんでした。
- b.雨は降っていますが、雪は降っていません。

[서술]를 나타내는 「가」는 그 술부가 비습관적동작이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요구한다. 술부가 상태를 나타내거나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6)(7)과 같이 그 주어로서의 「명사구+가」는 각각[총기(総記)]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 (6) a.手紙が来ました。
- b.雨が降っています。

- (7) a.太郎が学生です。
- b.犬が動物です。
- c.太郎が毎日学校に行きます。

또 구노(久野,1973)는 「가」와 「ハ」에 대해서 정보의 신규(新旧)가 중요한 개념으로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3)

- (8) a.兄弟の中で誰が独身ですか。
- b.太郎が独身です。

3) 구노(久野, 1973) 『日本文法研究』大修館書店 p.210

(8a)는 청자의 형제 중에서 누군가가 독신인 것을 화자가 전제를 하고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8b)의 주어 「타로우(太郎)」는 질문 중에 미지수X(즉, 「누구(誰)」에 해당하므로 새로운(또는 예측할 수 없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문(文)중에 「독신(独身)」은 X를 도출하기 위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증거로서 (8a)에 대해, 단

(9)太郎です。

라고 대답할 수 있다. 다음도 그렇다.

(10) a. 太郎と花子と夏子のうちで、誰が一番背が高いか。

b. 太郎が一番背が高いです。

에 있어서 (10b)의 주어 「타로우(太郎(が))」는 새로운 예측을 할 수 없는 정보를 술부 「一番背が高い」는 지난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주어진 구성요소가 그 문(文) 중에서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지, 지난 정보를 나타내는지라는 개념은 그 구성요소가 가리키는 사물이 이미 화제에 오른 것인지 어떤지라는 개념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의를 요한다. (10b)의 「타로우(太郎)」는 이미 질문 안에 등장한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전방초점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10b)의 문(文)중에서 「타로우(太郎)」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기능이란 견해에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정보, 즉 문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が」와 「は」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が」와 「は」의 성질이 상기와 같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조사로서 「が」와 「は」가 지시대명사(사물) 「これ, それ, あれ」가 접속이 되면, 조사로서 본연의 기능은 약화되고 지시대명사의 기능으로 바뀌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설을 토대로 본고는 일본문학작품 『신조문고 100선(新潮文庫100冊, 2001)』 CD-ROM⁴⁾에서 50권을 무작위 추출하여 「が」와 「は」에 대한 지시대명사(사물)가 접속을 하였을 경우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다.

4) 1995년 12월 발행한 『신조문고100선(新潮文庫の100冊)』은 CD-ROM을 사용해서 컴퓨터의 디스플레이에서 읽는 전자사전이다. 그리고 신조사(新潮社)가 1976년부터 매년마다 하는 신조문고(新潮文庫)의 캠페인으로 1995년발행한 CD-ROM에 따른 전자서적, 2000년에는 「신조문고 20세기의 100권」이란 기획도 있었다.

3. 「が」와 「は」에 따른 지시대명사와의 관계성

3.1 일본문학작품에서의 「これ, それ,あれ+ガ/ハ」의 빈도

제3장에서는 일본문학작품⁵⁾을 통해 「これ, それ,あれ」와 「ガ/ハ」의 상관관계, 사용빈도수를 알아보겠다.

[표1] 일본문학작품에서의 「が」와 「は」에 따른 「これ, それ,あれ」의 빈도수

	작품이름/분류	これが	これは	それが	それは	あれが	あれは	합계
1	パニック巨人と玩具裸の王様流亡記 (開高健)	11 (5.9%)	64 (34.4%)	19 (10.2%)	78 (41.9%)	0 (0.0%)	14 (7.5%)	186 (100%)
2	羅生門 (芥川龍之介)	18 (9.1%)	50 (25.5%)	55 (28.0%)	60 (30.6%)	2 (1.0%)	11 (5.6%)	196 (100%)
3	二十歳の原点 (高野悦子)	10 (12.8%)	11 (16.1%)	18 (26.4%)	37 (54.4%)	0 (0.0%)	2 (2.9%)	68 (100%)
4	風立ちぬ 美しい村 (堀辰雄)	2 (1.1%)	11 (6.3%)	76 (44.1%)	78 (45.3%)	0 (0.0%)	5 (2.9%)	172 (100%)
5	痴人の愛 (谷崎潤一郎)	17 (7.1%)	44 (18.4%)	77 (32.3%)	78 (32.7%)	4 (1.6%)	18 (7.5%)	238 (100%)
6	こころ (夏目漱石)	12 (6.3%)	39 (16.3%)	82 (43.3%)	55 (29.1%)	1 (0.5%)	0 (0.0%)	189 (100%)
7	人間失格 (太宰治)	10 (7.1%)	27 (19.2%)	23 (16.4%)	75 (53.5%)	0 (0.0%)	5 (3.5%)	140 (100%)
8	銀河鉄道の夜 (宮沢賢治)	6 (3.3%)	4 (2.2%)	34 (18.9%)	120 (67.0%)	4 (2.2%)	11 (6.1%)	179 (100%)
9	冬の旅 (立原正秋)	13 (3.0%)	154 (35.3%)	62 (14.3%)	161 (37.5%)	3 (0.6%)	38 (8.8%)	431 (100%)
10	雪国 (川端康成)	7 (9.8%)	5 (7.0%)	17 (23.9%)	36 (54.9%)	1 (1.4%)	5 (7.0%)	71 (100%)
11	あすなろ物語 (井上靖)	11 (11.4%)	21 (21.8%)	28 (29.1%)	34 (35.4%)	1 (1.0%)	1 (1.0%)	96 (100%)
12	アメリカひじき 火垂るの墓 (野坂昭如)	22 (16.4%)	48 (35.8%)	17 (12.6%)	38 (28.3%)	1 (0.7%)	8 (5.9%)	134 (100%)
13	エディプスの恋人 (筒井康隆)	5 (2.7%)	29 (15.8%)	51 (27.8%)	83 (45.3%)	2 (1.0%)	13 (7.1%)	183 (100%)
14	さぶ (山本周五郎)	15 (7.3%)	38 (18.6%)	64 (31.3%)	74 (36.2%)	3 (1.4%)	10 (4.9%)	204 (100%)
15	ビルマの堅《たて》琴《ごと》 (竹山道雄)	19 (8.7%)	62 (28.5%)	61 (28.1%)	55 (25.3%)	12 (5.5%)	8 (3.6%)	217 (100%)

5) 신조문고(新潮文庫)100冊 CD-ROM 新潮社 2001

16	孤高の人 (野田次郎)	5 (1.5%)	19 (5.9%)	97 (30.4%)	186 (58.3%)	5 (1.5%)	7 (2.1%)	319 (100%)
17	国盗り物語 (司馬遼太郎)	83 (9.6%)	229 (26.6%)	320 (37.2%)	152 (17.7%)	13 (1.5%)	61 (7.1%)	858 (100%)
18	錦繡 (宮本輝)	3 (3.2%)	6 (6.5%)	34 (37.3%)	43 (47.2%)	2 (2.1%)	3 (3.2%)	91 (100%)
19	檸檬 (梶井基次郎)	11 (2.7%)	50 (12.5%)	114 (28.7%)	217 (54.6%)	1 (0.2%)	4 (1.0%)	397 (100%)
20	若き数学者のアメリカ (藤原正彦)	13 (3.2%)	39 (21.3%)	59 (32.2%)	69 (37.7%)	0 (0.0)	3 (1.6%)	183 (100%)
21	路傍の石 (山本有三)	35 (12.1%)	40 (13.9%)	61 (21.2%)	122 (42.5%)	3 (1.0%)	26 (9.0%)	287 (100%)
22	李陵 山月記 (中島敦)	11 (15.7%)	16 (22.8%)	14 (20.0%)	28 (40.4%)	0 (0.0%)	1 (1.4%)	70 (100%)
23	放浪記 (林芙美子)	16 (19.7%)	24 (29.6%)	14 (17.2%)	18 (22.2%)	2 (2.4%)	7 (8.6%)	81 (100%)
24	砂の上の植物群 (吉行淳之介)	0 (0.0%)	18 (12.1%)	35 (23.6%)	87 (58.7%)	1 (0.6%)	7 (4.7%)	148 (100%)
25	死者の奢り (大江健三郎)	1 (0.6%)	10 (6.9%)	37 (25.8%)	87 (60.8%)	0 (0.0%)	8 (5.5%)	143 (100%)
26	焼跡のイエス、処女懐胎 (石川 淳)	29 (10.1%)	80 (27.9%)	91 (31.8%)	76 (26.5%)	4 (1.3%)	6 (2.0%)	286 (100%)
27	山本五十六 (阿川弘之)	50 (10.7%)	174 (37.3%)	80 (17.1%)	132 (28.3%)	2 (0.4%)	28 (6.0%)	466 (100%)
28	山椒太夫・ 高瀬舟 (森嶋外)	14 (7.5%)	50 (27.0%)	46 (24.8%)	68 (36.7%)	0 (0.0%)	7 (3.7%)	185 (100%)
29	聖少女 (倉橋由美子)	19 (6.9%)	59 (21.6%)	37 (13.6%)	137 (50.3%)	5 (1.8%)	15 (5.5%)	272 (100%)
30	小さき者へ、生れ出づる悩み (有島武郎)	1 (1.1%)	4 (4.7%)	24 (28.2%)	55 (64.7%)	0 (0.0%)	1 (1.1%)	85 (100%)
31	モオツァルト、無常という事 (小林秀雄)	22 (9.4%)	81 (34.6%)	32 (%)	95 (%)	0 (0.0%)	4 (%)	234 (100%)
32	世界の終りとハードボイルド・ ワンダーランド(村上春樹)	31 (3.8%)	108 (13.3%)	212 (26.2%)	437 (54.1%)	0 (0.0%)	19 (2.3%)	807 (100%)
33	雁《がん》の寺越前竹人形 (水上勉)	9 (8.9%)	17 (16.8%)	32 (31.6%)	36 (35.6%)	0 (0.0%)	7 (6.9%)	101 (100%)
34	塩狩峠 (三浦綾子)	4 (1.9%)	34 (16.3%)	42 (20.1%)	121 (58.1%)	1 (0.4%)	6 (2.8%)	208 (100%)
35	新橋烏森口 青春篇 (椎名誠)	5 (6.6%)	14 (18.6%)	13 (17.3%)	36 (48.0%)	2 (2.6%)	5 (6.6%)	75 (100%)
36	野菊の墓 (伊藤左千夫)	3 (9.6%)	3 (9.6%)	13 (41.9%)	12 (38.7%)	0 (0.0%)	0 (0.0%)	31 (100%)
37	野火 (大岡昇平)	22 (15.2%)	18 (12.5%)	41 (28.4%)	61 (42.3%)	0 (0.0%)	2 (1.3%)	144 (100%)
38	友情 (武者小路実篤)	11 (8.3%)	6 (4.5%)	26 (19.6%)	82 (62.2%)	3 (2.2%)	4 (3.0%)	132 (100%)

39	コンスタンティノーブルの陥落 (塩野七生)	23 (20.0%)	24 (20.8%)	39 (33.9%)	29 (25.2%)	0 (0.0%)	0 (0.0%)	115 (100%)
40	二十四の瞳 (壺井 栄)	6 (5.4%)	13 (11.8%)	30 (27.2%)	59 (53.6%)	2 (1.8%)	0 (0.0%)	110 (100%)
41	遠野物語 (柳田 国男)	7 (12.2%)	33 (57.8%)	2 (3.5%)	15 (26.3%)	0 (0.0%)	0 (0.0%)	57 (100%)
42	楡家の人びと (北 杜夫)	39 (4.0%)	173 (18.0%)	173 (18.0%)	511 (53.4%)	10 (1.0%)	50 (5.2%)	956 (100%)
43	忍ぶ川 (三浦哲郎)	11 (5.9%)	19 (10.2%)	59 (31.7%)	85 (45.6%)	4 (2.1%)	8 (4.3%)	186 (100%)
44	人民は弱し 官吏は強し (星新一)	20 (14.4%)	30 (21.7%)	32 (23.1%)	55 (39.8%)	0 (0.0%)	1 (0.7%)	138 (100%)
45	人生論のノート (三木清)	11 (6.4%)	23 (13.5%)	42 (24.7%)	94 (55.2%)	0 (0.0%)	0 (0.0%)	170 (100%)
46	新社長に乾杯 (赤川次郎)	15 (6.6%)	48 (21.2%)	43 (18.9%)	107 (47.1%)	3 (1.3%)	11 (4.8%)	227 (100%)
47	新源氏物語 (田辺聖子)	27 (5.7%)	103 (21.9%)	84 (17.9%)	233 (49.6%)	8 (1.7%)	14 (2.9%)	469 (100%)
48	戦艦武蔵 (吉村昭)	3 (2.2%)	6 (4.4%)	56 (41.1%)	70 (51.4%)	0 (0.0%)	1 (0.7%)	136 (100%)
49	点と線 (松本清張)	15 (7.1%)	55 (26.0%)	34 (16.1%)	100 (47.3%)	2 (0.9%)	5 (2.3%)	211 (100%)
50	ブンとブン (井上ひさし)	10 (9.3%)	39 (36.4%)	20 (18.6%)	34 (31.7%)	1 (0.9%)	3 (2.8%)	107 (100%)
	합 계	770 (6.8%)	2272 (20.3%)	2772 (24.7%)	4811 (43.0%)	88 (0.7%)	473 (4.2%)	11186 (100%)

* 소수점 두 번째 이하 버림

[표1]의 빈도수를 보면 *それは* > *それが* > *これは* > *これが* > *あれは* > *あれが*와 같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의 특징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3.2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가」와 「하」에 있어 「*これ*, *それ*, *あれ*」와 접속되었을 경우 「*これは*, *それは*, *あれは*」(67.5%)가 「*これが*, *それが*, *あれが*」(32.4%)보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유표성(有表性)⁶⁾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눈여겨 보아야 할 작품은 『遠野物語(とおのものがたり)』의 경우, 「*これ 가/ハ*」는 각각 7건(12.2%)과 33건(57.8%)으로 「*これ 가/ハ*」만을 비교했을 때 35.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塩狩峠(しおかりとうげ)』의 「*それ 가/ハ*」 경우 각각 42건(20.1%)과 121건(58.1%)으로 38.0%의 비율차로 「*それは*」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あれ 가/ハ*」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이 「*あれ가*」의 빈표율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あれ 가/ハ*」가 현저한 빈표율을 나타나게 된 것은 4장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소설의 장르

6) 여럿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는 의미.

특성상의 상황설정, 즉 「あれ ガ/ハ」는 독자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있어 같은 시각에서 원근적인 한정된 상황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7)

한 작품을 더 들어 보자면 『冬の旅(ふゆのたび)』의 경우 「これ ガ/ハ」는 각각 13(3.0%)건과 154건(35.3%)으로 32.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が」와 「は」의 문법적 특징이 소설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두 번째는 「これ, それ,あれ ガ/ハ」에 있어 빈도수가 제일 많은 「それが」와 「それは」이다. 빈도표를 한 눈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それが」(24.7%)와 「それは」(43.0%)가 총11186건(100%)에서 7583건(67.7%)을 차지함으로써 두드러지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쇼호이(正保,1981)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ソ」가 가지는 용법, 즉 「コ」에서도 「ア」에서도 지시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지시적 용법뿐만 아니라 「コ」나 「ア」가 지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지시를 가정할 때에 행하는 지시사라는 지적은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1)この時先生は起き上って、縁台の上に胡坐《あぐら》をかいていたが、こう云い終ると、竹の杖の先で地面の上へ円のようなものを描《か》き始めた。それが済むと、今度はステッキを突き刺すように真直に立てた。 こころ(夏目漱石)

(12)生きてたときはミイミィとなき蝶《ちょう》のように花の蜜《みつ》をたべるあの小さなかあいらしい蜂雀です。わたくしはその四疋の中でいちばん上の枝《えだ》にとまって、羽を両方ひろげかけ、まっ青なそらにいまもとび立ちそうなのを、ことにすきでした。それは眼《め》が赤くてつるつるした緑青《ろくしょう》いろの胸をもち、そのりんと張った胸には波形のうつくしい紋《もん》もありました。 銀河鉄道の夜(宮沢賢治)

(11)의 경우 「これが」를 「それが」로 거리를 나타내어 근칭을 사용해도 가능하나 중칭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円のようなもの(원같은 것)」를 바라보는 원근법적인 상황을 설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의 경우에도 「蜂雀(벌새)」를 거리적인 간격을 둠으로서 전체적인 「蜂雀(벌새)」의 형태를 인지하도록 하여 독자를 끌어들이려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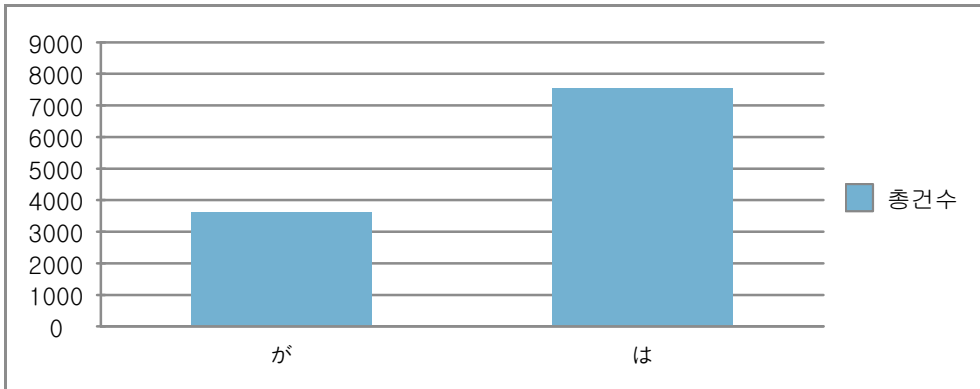
7) 쇼호이 사무(正保勇, 1981) p.76 에 따르면 「コ, ソ, ア」 형태를 융합형(融合型)과 대립형(對立型)으로 나누고 있다. 융합형(融合型)은 「コ」「ソ」「ア」모두 같은 영역안에 있다는 용법이고, 대립형(對立型)은 「コ」「ソ」는 같은 영역 안에 있으나 「ア」는 「コ」「ソ」의 영역 외에 위치해 있다는 용법이다.

8) 쇼호이 사무(正保勇, 1981) 『日本語の指示詞』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8』 国立国語研究所, pp.105-111

3.2 「これ, それ, あれ + 가/ハ」에 따른 유표성(有表性)

[표1]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これ, それ, あれ + 가/ハ」의 사용빈도를 통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겠다.

[표2] 일본문학작품에서의 「これ, それ, あれ + 가/ハ」에 따른 표출 총건수⁹⁾



[표2]는 [표1]에서 표출된 사용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これ, それ, あれ 가」는 3630건(32.4%), 「これ, それ, あれ + ハ」는 7556건(67.5%)으로 2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나 있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전형적으로 「これ, それ, あれ + ハ」는 「これ, それ, あれ + 가」보다 유표성(有表性)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표성(有表性)이 크다는 것은 일본문학작품에 있어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독자에게 있어 공간적인 상황, 즉 「これ, それ, あれ + ハ」는 「これ, それ, あれ + 가」보다 거리를 두고 묘사함으로써 독자가 상황을 지켜보는 연출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10)

[표2]와 같은 결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어조사 「ハ」와 「가」는 지시대명사 「これ, それ, あれ」가 수반 될 경우 「ハ가」는 시간적인 개념, 즉 신구(新舊)를 묻지 않고 지시사와의 관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ハ가」를 단순히 「ハ」는 구정보, 「가」는 신정보로 볼 것이 아니고 명사구로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9) 신조문고(新潮文庫)100冊 CD-ROM 新潮社 2001

10) 쇼호이 사무(正保勇, 1981)p.75 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소설, 논문 등의 문장에서 청자와 화자의 세력권내 외의 화제상황을 지시사로 서술하고 있고, 일본어 조사 「가」는 구어체, 「ハ」는 문어체로 구분하고 있다.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묘사하는 장르의 특성상 문어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ハ」가 출현하는 비율이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4. 「これ, それ, あれ」에 따른 「가/ハ」의 문맥고찰 -이중적(二重的)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미카미(三上,1953)를 비롯한 노다(野田,1996) 이오리(庵,1997)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は」와 「が」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원리로 구분하고 있다.¹¹⁾

- ①주체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떤지의 원리 → 문(文)과 절(節)의 원리
- ②주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의 원리 → 현상(現象)문과 판단문의 원리
- ③무엇을 주제로 하는가의 원리 → 신정보와 옛정보의 원리
- ④주체를 명시할지 어떨지의 원리 → 조정(措定)¹²⁾과 지정(指定)의 원리
- ⑤어떻게 한정할지의 원리 → 대비와 배타(排他)의 원리

상기와 같이 「が」와 「は」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시대명사(사물) 「これ, それ, あれ」에 「가/ハ」를 접속하게 되면 이중적(二重的)의미를 갖는다. 이중적 의미구조는 [표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3] 독립형과 분리형



이중(二重)의미구조는 독립형과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형은 「これ, それ, あれ」가 「가/ハ」와 접속을 했을 경우 「가/ハ」는 「5가지의 원리」의 기능은 상실되어 「これ, それ, あれ」는 지시사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형태이고 분리형은 「가/ハ」가 「5가지의 원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これ, それ, あれ」도 지시사의 기능을 가지는 형태를 의미한다.

11) 노다 히사시(野田尚史)(1996) 『「は」と「が」』 くらしお出版, p.117
12) 어떤 명제를 추리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긍정하여 주장한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が」와 「は」는 각각의 의미기능적인 역할(5가지 원리)과 지시대명사 「これ, それ, あれ」가 접속되었을 경우 지시사적인 의미기능만이 나타나게 되어 본연의 조사로서의 기능은 상실된다는 이상의 이중적(二重的) 의미구조¹³⁾가 가질 수 있다는 가설(假說)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4.1 「これ 가/ハ」의 의미기능

(13)然しその私だけにはこの直感が後《のち》になって事実の上に証拠立てられたのだから、私は若々しいと云われても、馬鹿気っていると笑われても、それを見越した自分の直覺をとにかく頼もしく又嬉しく思っている。人間を愛し得る人、愛せずにはいられない人、それでいて自分の懐《ふところ》に入ろうとするものを、手をひろげて抱き締める事の出来ない人、これが先生であった。 こころ(夏目漱石)

(14)「煙草はやるが、口が一つ増えたんだ。そのつもりで、少しはせつせと獲らなくっちゃ、駄目《だめ》だってことさ」永松は黙っていた。彼が安田に答えないので見るのは、これが初めてであった。 野火(大岡昇平)

(15)先程から露路の上には盛んに白いものが往来している。これはこの露路だけとは云わない。表通りも夜更けになるとこの通りである。これは猫だ。 檸檬(梶井基次郎)

(16)超常現象が起った事件の回想なのだから、この第一の部分が事件そのものをあらわしているのだ。ここで変なことばが聴覚型言語表象として出てくる。「三年の香川君が屋上から落ちそうになって」ということばで、これは女の声だ。 エディプスの恋人(筒井康隆)

(13)의 「これが」는 「手をひろげて抱き締める事の出来ない人(손을 펴고 안을 수 없는 사람)」를 지시하는 것으로 「총기(總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가」로써의 기능 역할은

13) 테라무라 히데오(寺村秀雄, 1991)pp.169-170에서 하기(下記)의 예문에 대해 A, B와 같은 이중(二重)의 의미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정(措定)+지정(指定)」즉, 조정(措定)은 「ハ」, 지정(指定)은 「가」로 대립의 의미로 알려져 왔지만 테라무라(寺村)는 「판단의 표현」이라 하여 문(文)에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문.こいつだけが敵ではない。

- A:①こいつは敵ではない。 (이 놈은 적이 아니다)
- ②こいつ以外はみな敵だ。 (이 놈 이외에는 모두 적이다)
- B:①こいつも敵の一人だ。 (이 놈도 적의 한 사람이다)
- ②こいつ以外にも敵はいる。 (이 놈 이외에도 적은 있다)

4.3 「あれ ガ/ハ」

(20)「あれがヒルテイの村でしょうか。」私は団長にたずねました。団長は、しきりに地図と眼の前の地形とくらべていましたが、しばらくたって眼鏡《めがね》をちょっと直しながら、「そうです。あれがヒルテイの村です。……」 銀河鉄道の夜(宮沢賢治)

(21)人々は手に手に竹槍《たけやり》もち、抜《ぬき》身《み》の大刀を地に突き刺している者もある。次の辻では、二人の若者が—あれが朝鮮人だなど城吉はちらと思ったが……。 楡家の人びと(北 杜夫)

(22)彼女は相手を珊瑚の間の床の間へ連れていった。
「あれは珊瑚よ。珊瑚って高いのよ。これみんなで百万円の何倍も何倍も……きっと千万円くらいするわ。この半分はあたしが貰っちゃうんだから」 楡家の人びと(北杜夫)

(23)「復学しないとすると、どうするつもりなんだ?」
「僕はね、バーテンをやりたいんだ」
「バーテン? バーのバーテンのことか?」
「そうだ。あれはカッコいい仕事だよ」 冬の旅(立原正秋)

4.3에서는 문학작품에서 예문은 추출하는데 수가 많지 않았지만 「これ ガ/ハ」「それ ガ/ハ」와 같이 (20)(21)도 각각 「가」는 「총기(總記)」로서「ヒルテイ의村(히루테이 마을)」「二人의若者(두 명의 젊은 사람)」, 그리고 지시사로서의 역할, (22)(23)도 마찬가지로 주제로서 「珊瑚(산호)」「バー의バー텐(빠텐다)」를 나타내고 지시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이중(二重)의미구조를 가지고 있다.

5. 마치며

「가」와 「ハ」의 기능은 4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학교문법에서는 「가」는 일반적으로 「topic」의 의미나 신정보로서의 의미 등을 나타내고, 「ハ」는 「주제」의 의미와 「옛정보」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가」와 「ハ」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지시대명

사(사물)「これ, それ, あれ」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단순히 「が」와 「は」를 신구(新舊)로 규정하는 선행연구보다는 명사구에 주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어 조사 「ガ/ハ」가 지시대명사(사물)「これ, それ, あれ」와 접촉을 하여 명사구로서 조사의 기능을 했을 경우, 「これ, それ, あれ」는 「これ, それ, あれ 가」보다 2배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고 이 중에서 「それ 가/ハ」는 「これ, あれ 가/ハ」에 비해 3배 정도의 빈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は」는 「が」보다 유표성(有表性)이 크고 「それ 가/ハ」는 「これ, あれ 가/ハ」보다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광범위하다. 그리고 「これ, それ, あれ 가/ハ」에서 「が」와 「は」는 조사로서의 기능의 의미도 갖고 있으나, 한편 지시사의 기능이 강화되어, 선행연구에 있어서 조사로서의 본연의 기능은 상실되는 이중(二重)적 의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로 「が」와 「は」의 연구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본 연구를 계기로 다시금 재고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

【參考文獻】

- 庵功雄(1997) 「「は」と「が」の選択に関わる一要因—定情報名詞句のマーカ—の選択要因との相関からの考察—」『国語学』188, pp.134-144
- 上林洋二(2000) 「固有名の意味」『文学部』14-1号, 文教大学文学部, pp.36-47
- 大島資生(1995) 「「は」と連体修飾節構造」『日本語の主題と取り立て』くろしお出版, pp.109-138
- 尾上圭介(1981) 「「は」の係助詞性と表現的機能」『国語と国文学』, pp.40-53
- 菊地康人(1995) 「「は」構文の概観」『日本語の主題と取り立て』くろしお出版, pp.37-70
- 久野章(1973) 『日本文法研究』大修館書店, pp.207-262
- 坂原茂編(2000) 『認知言語学の発展』ひつじ書房, pp.48-59
- 正保勇(1981) 「日本語の指示詞」『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8』国立国語研究所, pp.75-116
- 竹林一志(2004) 『現代日本語における主部の本質と諸相』くろしお出版, pp.131-156
- 仁田義雄(1985) 「主格の優位性—伝達のムードによる主格の人称指定—」『日本語学』10月号明治書院, pp.33-45
- 西山祐司(2005) 「コピュラ文の分析に集合概念は有効であるか」『日本語文法』5巻2号, pp.63-77
- 丹羽哲也(2004) 「名詞句の定不定と『存否の題目語』」『国語学』第55巻2号, pp.21-35
- _____ (2004) 『朝倉日本語文法6文法Ⅱ』—「第11章主語と題目語」朝倉書店, pp.275-276
- 寺村秀雄(1991)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Ⅲ』くろしお出版, pp.169-170
- 野田尚史(1996) 「「は」と「が」」くろしお出版, pp.107-117
- 益岡隆志他編(1995) 『日本語の主題と取り立て』くろしお出版, pp.139-154
- 三上章(1953) 『現代語法序説』刀江書院(復刊 1972) くろしお出版, pp.29-41
- _____ (1960) 『象は鼻が長い』くろしお出版, pp.8-16
- _____ (1972) 『続・現代語法序説』くろしお出版, pp.74-83
- 山田昌裕(2003) 「名詞文『AガBダ』型の発生とその拡大の様相—主格表示『ガ』と係助詞『ソ』『コン』との関連性—」(『国語学』第54巻2号), pp.56-74

<예문출처>

新潮文庫100冊 CD-ROM 新潮社 2001

논문투고일 : 2012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7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25일

 < 要 旨 >

현대일본어조사 「가/와」에 관한 연구 - 지시대명사 「これ, それ, あれ」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지금까지의 「가」와 「와」의 출현,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오리(庵, 1997)는 「가/와」의 구문을 주로 다루어 구문에 있어서의 「가/와」의 출현이 지시사(この, その)의 존재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오리(庵, 1997)의 견해는 「가/와」출현요인을 「지시사의 의미기능(즉, 신정보의 지시인지 옛(구)정보의 지시인지)」와 관련시켜 논하고 있다는 점으로도 상당한 시사를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와」의 출현요인을 오로지 지시사(この, その)의 의미기능에 주목하려는 이오리(庵, 1997)의 「가/와」의 출현에 따른 지시사(この, その)의 존재에 따른 영향성에 관한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니시야마(西山, 2003)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가」와 「와」의 구문에 있어서 「가/와」의 배타적 출현요인은 지시사의 의미기능과 상관성에서 고찰하기 보다, 오히려 조사에 선행하는 명사구와의 상관성에서 고찰한 것이 크나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가」와 「와」의 사용구분에 따른 원리와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조사 「와」와 「가」가 신구(新舊)의 의미로서만 사용되어 왔지만 본고는 「와」와 「가」를 명사구에 주목하여 지시대명사(사물) 「これ, それ, あれ+가/와」에 있어 「가」와 「와」가 기본적인 기능은 상실하고 지시대명사의 성질인 지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적(二重的) 의미구조를 입증하고,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Study on "ga/wa" Japanese postpositiona - demonstrative pronoun "kore, sore, are" with the Correlation Based-

Until now, "ga" and "wa" "As for the emergence of correlated been studied, and especially iori (1997)" ga / wa "syntax is treated primarily flow" ga / wa "in the emergence of to instruct (sono, kono) greatly affects said that these iori (1997) view of the "ga / wa" appearance factor "instructions, the meaning of the function (ie, new information or instructions is a historical (old) information is directed),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current events provoked considerable respect, but" ga / wa "the emergence of factors, only the meaning of the instructions in the note features a iori (1997) view of the stock think there are a lot of in response, the niwa (2003), as pointed out in "ga" and "" syntax "ga / wa" means an exclusive feature of the emergence factors correlated with the instructions in the study rather than a correlation between noun phrases in the preceding investigation to study a profound effect, giving indication on (things) and the connection is if you think that the loss of its function so far of this study was not conducted at all, indication on (things) "kore, sore, are / wa" are "ga" and "wa" and the loss of basic functions of the instructions tell the truth, the nature of the influencing role to prove the correlation is meaningful to clarify.